

루마니아 선교편지

제 58 호

2019. 9. 23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삼상1:28)

성도들과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능력 있는 왕을 구하나, 내 자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우시며 능력있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진정한 왕이 계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 소식을 올립니다.

♣ 주일학교 상황

1. 교사 양성학교: 집시 교회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양성학교가 8/26~8/30일 까지 숙식을 함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시작 직전, 세 교회에서 참석이 어렵게 되어 기대보다 적은 수가 모였지만, 감사한 것은 교육 후 주일학교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교회, 힘들어 중단했던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교회들이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집시교회들은 비록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서도 후세대에 대한 관심이 아주 적고, 또한 관심이 있어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학교와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 교사로 봉사할 일군이 적은 상황입니다.

2. 특별 수련회 및 여름캠프: 7월초와 9월초에 펠디와라와 아라치 교회의 제자훈련을 받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펠디와라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귀한분의 헌신을 통해 펠디와라와 아라치 교회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8/12~8/17일까지 브라쇼브 근교의 수련회장에서 여름수련회를 은혜롭게 가질 수 있었고, 학교 개학 전에 다시금 아이들을 세우고자 펠디와라 교회로 데려와 함께 집중 기도회를 하고, 바비큐와 마당 잔디구장에서 실컷 축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아라치 교회는 30여명의 아이들이 제자훈련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열심을 내다가도 금방 시들해지는게 이들의 특징이라,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지금부터 연말까지 전도와 초청 그리고 교육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3. 룯밥 교회 주일학교: 펠디와라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지도자가 자매 2명을 주일학교 양성학교에 보냈고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주일학교를 섬기려는 지도자의 자녀와 청소년들에게 디누 전도사가 악기를 지도하면서 신앙을 돈독히 세우는 일부러 도우면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코자 합니다.

♣ 펠디와라 교회 공사 진행

여름 행사를 끝내자마자 디누 전도사와 몇 명의 성도가 힘을 합쳐 교회 내부와 외부 공사를 일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용직으로 먹고 사는 성도들, 완성이 조금 덜 된 예배당을 이대로 방치 할 수 없다며 자기 주머니를 털어 공사비를 보태고 몇 날을 새벽까지 일을 하여 정돈을 끝냈습니다. 아직도 손을 대야 할 곳이 남아 있지만 형편이 되는대로 조금씩 해 나가려고 하고, 화장실도 손 씻을 물도 없이 지내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9/29일을 총력전 도주일로 정하고 특별히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 뜨르너베니 교회

가난한 집시 공동체인 뜨르너베니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직장이 없기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일정으로 영국이나 독일 또는 헝가리등으로 막노동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벌어 와 십일조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안수집사인 '아디소르' 형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헌신을 실천하며 여러 성도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떨어져 사는 가난한 성도들이 교통요금에 많은 부담을 이유로 교회오는 것을 힘들어 하고 있어 이들을 돕고자 낡은 봉고차라도 구입하여 차량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 헌금을 모았는데, 부족한 금액이 곧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네 전도사 부부가 이번 주일학교 교사 양성학교에 참석을 했는데, 많은 도전을 받고, 그동안 힘들다는 이유로 중단했던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일꾼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잘 무장되어 중단 없이 주일학교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 지도자 기도모임

수 년 동안 매주모여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감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며 세워나가야 하는데, 보여주고자 하는 욕심에 끌려 서로를 존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해도 있었고 또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서로 용서하고 다시 모이기를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본죽 선교매장과 가족소식

선교 매장에 3개월 동안 귀한 자원봉사 부부를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수고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떠나고, 작년에 매장 손님으로 지나쳐갔던 싱가포르 자매(이 땅에 오직 주 밖에 없는, 오직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4년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47세)를 1년 만에 우연히 자원봉사자로 저희 집에 오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10/22일 의사고시 전에 통과해야하는 해부학 시험을 앞두고 있고, 경진이는 한동대학 마지막 학기를 다니며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진이는 올 해도 혼자 한국에 가서 병원 검진을 받고 큰 어려움없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11학년(고2)인데, 고생하는 한국 학생들을 보고 와서 그런지 감사하는 마음이 좀 커진 듯 합니다.

♣ 기도제목

1. 펠디와라, 뜨르너베니, 아라치 교회 사역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2. 주일학교를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3. 함께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4. 수진이 시험과 경진이 취업,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 후원계좌: 외환은행 010-04-06389-596 (예금주:GMS배만주) LG 070 8625-7488

오직 주의 사랑에 깊이 젖어 사는 날마다의 삶이되기를 소원하며...

루마니아 배만주.이명자(수진,경진,예진)선교사 올림